

2025. 11. 28.(금)
Vol. 37

우리 팀 소개, ⑥ 대형압연팀 “구조물의 기초 뼈대와 같이 견고하게 기본부터 충실히 실천하자!”



▲ 왼쪽부터 김태형 매니저, 석광원 기장, 이동용 팀장, 유성남 기장, 박성용 책임매니저

Q. 대형압연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형압연팀장 이동용입니다.
대형압연팀은 소형, 철근, 재공장, 대형압연공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공장에서 철근, 형강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압연팀은 H빔과 같이 구조물의 기초와 뼈대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과 생산품질의 기초부터 튼튼이라는 신념으로 단결하여 주어진 생산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대형압연팀의 2025년 마무리 계획은 무엇인가요?

대형압연팀의 2025년은 팀장 변경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팀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부서 발전과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남은 기간에는 대형공장 하반기 대보수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재해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팀원들과 함께 하나되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대형압연팀의 2026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대형압연팀의 2026년 계획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핵심 목표로, 팀원 각자가 안전 행동을 습관화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소통을 통해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반드시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대형압연팀 모두가 하나 되어 기초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철근공장) 왼쪽부터 이원석 사원, 오승범 사원, 이주노 주임, 김효진 사원

Q. 소형,철근 어떤 일을 하나요?

철근제품에 길이 절단부터 결속 작업까지...
철근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부터 절단된 철근을 각 수량에 맞게 제품 결속기 운영과 제품생산에 마무리 공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상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최종품질 확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근 | 박병수 계장 소형, 철근은 소수에 인원이 후처리 공정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고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더욱 가족같이 단합하여 편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상호간에 배려와 신뢰감을 갖고 모든 인원이 업무에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재공장) 왼쪽부터 이은철 사원, 김영환 사원, 박정근 주임, 유성남 기장, 최상봉 주임, 이동용 팀장, 최광훈 사원, 김병준 주임

Q. 재공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결함이 발생한 H빔, I빔 중 제품은 재공장으로...
결함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 불량 유형에 따라 용접, 그라인딩, 프레스, 열교정, 절단 등의 후작업으로 불량부분을 재수정 작업을 통해 정상품으로 전환시켜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공장 | 김현일 계장 재공장은 근무는 상주, 교대 근무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항상 품질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까다로운 품질관리로 불량품이 고객에게 납품되지 않도록 품질의 최종 단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예방은 나부터 실천하자는 의식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900톤 프레스 | 김봉기 계장 생산된 H빔, I빔의 직진도가 상,하,좌,우 굽어져 생산 된 제품을 프레스로 눌러서 직진도를 정상 규격내에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00톤 프레스에는 설비조작 4명, 기중기운전 4명으로 구성되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대시 항상 TBM을 통해 서로 대화하면서 근무 조별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계절, “겨울·눈” 추천도서 코너 하얀 눈 속, 마음의 온도를 올리다

도서 추천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까지 꽂꽂 얼어붙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고요하고 포근한 이야기, 또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눈송이처럼 내려왔을 거예요. 추천해주신 책 중 테마와 어울리는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이번 추천도서 “테마”는 ?

겨울·눈

• 참여 방법

1 전자도서관에서 “테마와 어울리는 책” 읽기

2 책 추천 이유와 감상평 작성하기 (*자유양식)

3 메일로 보내기 (hhk7631@hyundai-isc.com)

• 참여 기간

'25년 12월 10일(수) 까지

• 시상

심사 후 우수 추천작 선정 ▶ 선정자 개별 안내 및 사보 공지 ▶ 소정의 선물 증정 (EX.텀블러)

이번호 “위로” 테마 추천도서 물류지원팀 김현수님의 추천도서 이야기



참 괜찮은 말들.

인문 교양 | 박지현

저자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말’을 기록한 책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이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다정한 말과 태도를 지닌 이들이 많았다. 그 따뜻한 말들 가운데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57개의 문장을 골라 전한다.

Q. 도서 추천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지원팀 김현수 계장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곤 하잖아요. 이 책은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로 건네는 책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조금 더 진심을 담은 말,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하루를 만들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우리의 삶도 더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태어난 것이 이미 목적이다. 지금 이 시간은 신이 준 보너스 게임이다.” 신해철의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말이었습니다.

Q.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 책에 담긴 말들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네 볼 수 있는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수 계장처럼, 전자도서관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전자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정년 후에도 이어질 새로운 여정을 위하여...

2025년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더위크앤리조트에서 2025년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퇴직 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변화관리], [자기탐색], [재무설계], [건강관리], [진로탐색], [목표수립], [진로설계]로 구성되었으며, 이동거리를 최소화해 근거리에서 실질적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참여자들은 “교육이 알찼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으며, 일부는 “교육 일정이 다소 빠듯했다.”, “조금 더 일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마치며, 오랜 시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그 경험과 헌신이 새로운 길에서 빛나길 바라며, 선배님들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의 기술 리더, 현대ISC의 기능장을 소개합니다.

기능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급 숙련 기능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5~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자격 취득의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기능장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술 인력을 의미합니다.

2025년 9월 기능장 자격(제78회)을 취득한 제강팀 김천식 주임과 기계정비팀 박승현 사원을 포함하여 현대ISC의 자랑스러운 기능장을 소개합니다. 회사의

기술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기능장이 배출 되어 기술 리더로서 현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능장 제강팀 김천식 주임(용접기능장), 중형압연팀 조상필 계장(용접기능장), 기계정비팀 김재진 주임(배관기능장/보일러기능장/용접기능장), 기계정비팀 박승현 사원(에너지관리기능장), 전기정비팀 노승철 주임(전기기능장/위험물 기능장)

현장 안전의식의 새로운 시작! 현장 중간관리자 안전역량 강화 교육

10월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 서두름 없는 '안전 습관'을 다짐하다

지난 10월, 현장 안전의 핵심 관리감독자인 계장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고 주범인 '서두름 관행' 근절을 위한 마인드셋 혁신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안전 역량 로드맵의 핵심 첫걸음이자,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교육 Focus : 왜 서두르면 안 되는가? '안전 의식'의 재정립

A. 문제의 본질 : '서두름'의 심리학적 위험성

교육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서두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두름이 유발하는 인지적 오류와 판단력 저하가 재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 방식' 고수 행위가 조직 안전을 위협함을 인지하고, 관리자 스스로 위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B. '안전은 곧 효율' Mind-Set 정립 및 비전 공유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안전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경영진이 직접 공유한 안전 철학과 비전은 관리감독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조직 목표와 일치시키는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C. 관리감독자의 '코칭' 역할 강조

관리감독자는 더 이상 지시만 하는 역할이 아닌, 현장 직원의 안전 실천을 돕는 '안전 코치'로 거듭나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직원의 안전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확인'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코칭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이번 10월 교육으로 다져진 '안전 의식'이 우리 현장의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입니다.


관리감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서두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습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추위를 이기는 건강한 습관!

올 겨울 큰 기온 변화와 함께 큰 폭으로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에서는 한랭질환에 대해 유의할 것을 권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한랭질환

저체온증	
	<p>정의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C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로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 됨</p> <p>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 점점 의식이 흐려짐 •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 팔,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 <p>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 된 아기

동상	
	<p>정의 혹한에 의해 인체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부위에 발생함</p> <p>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도 :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짐, 가려움증, 부종 • 2도 :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 3도 :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 소실 • 4도 : 근육 및 뼈 괴사 <p>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장갑, 신발, 양말 등)을 입지 못한 경우

한랭질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가능한 빨리 진찰받기
- 담요나 옷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37~42°C)에 담그기

※ 동상 부위를 비비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행동은 절대 삼가!

외출&건강수칙	
외출 전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외출 후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내복 등을 겹쳐 따뜻하게 입습니다.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생활 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 환경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음주	음주 시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낙상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 등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호흡기 질환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많아지며, 천식,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afety Quiz, 안전 지식 한입

Q.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에는,

- ①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고
- ② 취급이 어려운 경우 손잡이, 갈고리를 붙이는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은 최소 몇 kg이상의 중량물부터 해야할까요?



- **응모방법** : 정답/소속부서/사번/직책/이름/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곳** : bin9506@hyundai-isc.com (황원빈 매니저)
- **포상지급** : 추첨을 통하여 총 20명 5,000원/인 현금 지급 (계좌)
- **응모기간** : '25년 12월 5일 (금) 까지

*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36호 'Safety Quiz' 정답 : 작업중지권
당첨을 축하합니다!

No	팀명	이름	No	팀명	이름
1	제강팀	한상현	11	물류지원팀	한동선
2	제강팀	전현배	12	물류지원팀	이창화
3	제강팀	문병일	13	물류지원팀	김진호(****300)
4	제강팀	주도광	14	물류지원팀	박찬영
5	대형압연팀	김영채	15	물류지원팀	박진수
6	중형압연팀	최재원	16	물류지원팀	손우석
7	중형압연팀	최용우	17	물류지원팀	김현수
8	중형압연팀	소원우	18	물류지원팀	이정일
9	기계정비팀	박승현	19	물류지원팀	변성용
10	기계정비팀	김진현	20	물류지원팀	이현상